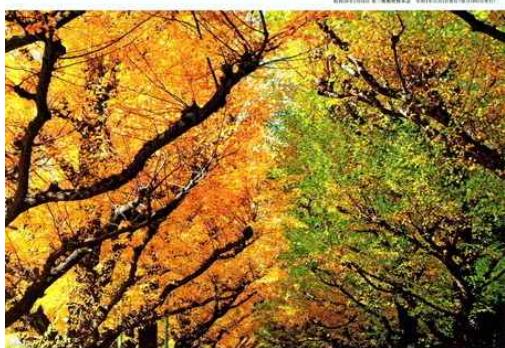


「대백연화」 11월호 이케다 선생님의 강의가 스타트

「어의구전(御義口傳)」 요문편(要文編)

2022년 10월 25일



이케다 다이사쿠(池田大作) 선생님이 전 동지에게 보내는 새로운 「어의구전(御義口傳)」 강의(講義)를 개시! 「대백연화(大白蓮華)」 11월호가 완성돼 연재 중인 이케다 선생님의 강의 「세계를 밝히는 태양의 불법(佛法)」에서 「어의구전」 요문편(要文編)이 시작됐다.



@seikyoonline.com

이는 이케다(池田) 선생님이 학생부 대표에게 한 「어의구전」 강의 개시(1962년 8월 31일) 60주년의 의미를 담아 이 어서(御書)의 요문(要文)을 강의하는 것.

「어의구전」은 니치렌 대성인(日蓮大聖人)께서 말법(末法)의 어본불(御本佛)로서의 경지(境地)에서 법화경(法華經)을 자유자재로 활달하게 강의하시고 그 주옥의 언언구구(言言句句)를 낫코 상인(日興上人)이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'사제(師弟)의 중서(重書)'다.

이케다 선생님은 강의의 시작에 즈음해 “도다(戸田) 선생님과 사제(師弟)로, 바로 니치렌 대성인께서 직접 구전(口傳)하시는 것을 배독한다는 각오로, 일문(一文) 일문, 심간(心肝)에 물들여 실천해 온 어서(御書)”라고 말했다.

제1회 테마는 「어의구전」 전체의 첫머리에 실려 있는 ‘남묘호렌게쿄(南無妙法蓮華經)’. 선생님은 이 어서를 배독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신에 대해 “남묘호렌게쿄란 대성인께서 각지(覺知)하신 우주와 생명을 관통하는 근원(根源)의 법(法) 그 자체, 일념삼천(一念三千)의 법리(法理) 그 자체라는 대확신에 서는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또 「어의구전」에 나타나 있는 ‘인간종교(人間宗教)’의 기둥으로 ①민중불법(民衆佛法) ②사제(師弟)의 종교(宗教) ③생명존엄(生命尊嚴)의 사상(思想) 등 3점을 들고, “혼미(混迷)함이 심화되는 21세기에 있어서 지구의 평화를 위해 ‘생명존엄의 종교’ ‘인간주의의 불법’을 「어의구전」의 한없는 지혜(智慧)에서 배워 더 한층 명확히 해가고 싶다.”라고 밝혔다.

또한, “쿄(經)란 일체중생(一切衆生)의 언어(言語) 음성(音聲)을 죠(經)라고 하느니라.” (어서신판 984 · 전집 708) 등을 배독하며 ‘제목(題目)의 음성(音聲)’ ‘용기의 소리(聲)’를 전 세계에 울리면서, 상락아정(常樂我淨)의 개가(凱歌)의 인생을 구축하자고 호소했다.

자, ‘청년 · 개가(凱歌)의 해’인 내년을 향하여! 스승과 함께 니치렌불법(日蓮佛法)의 진수(眞髓)를 심간(心肝)에 물들이면서, 신심(信心)의 환희를 당당히 말하고 넓혀 나가자.

덧붙여 내년의 「대백연화」 1월호부터 본문의 문자가 커짐에 즈음해, 이 연재부터는 선행해 대문자화를 실시하고 있다. 209엔.(세 포함) 지역에 따라 배달 날짜가 다릅니다. 전자서적은 희망 소매가격 188엔.(세 포함) 가격이나 전달일은 각 전자서점에 따라 다릅니다.

버지니아공대 명예교수 개리슨 박사 총본부에

2022년 10월 25일



총본부를 방문한 개리슨 박사와 이케다 주임부회장이 화기애애하게. (학회
본부 별관에서) @seikyoonline.com

미국 버지니아공대 명예교수 짐 개리슨(Jim Garrison) 박사(존 듀이협회 전 회장)가 어제 24일, 도쿄(東京) 시나노마치(信濃町)에 위치한 총본부(總本部)를 방문. 이케다 주임부회장 등이 환영했다.

개리슨 박사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철학자 듀이(John Dewey, 1859~1952) 연구의 대가(大家). 2008년 8월에는 이케다 선생님에게 존 듀이 협회의 종신명예회원증을 수여하기도 했다.

간담의 석상에서 이 증서의 날짜가 이케다 선생님의 입신(入信)기념일인 ‘8월 24일’이었던 것이 화제가 되었다. 이케다 선생님이 스무 살 때 엮은 “**패전국 일본 건설의 모든 근본 사상을 수립하고 싶었다.**” 등 4가지 입신 동기가 이케다 주임부회장으로부터 소개되자 박사는 “**신앙의 길에 들어선지 얼마 안 된 젊은 이케다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명확한 결의를 굳히시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명했습니다.**”라고 말했다.

또한 개리슨 박사가 지난 22일, 소카대학(創價大學)에서 강연한 데 대해 이케다 주임부회장이 감사를 표하자, 박사는 “**과거의 역사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전쟁 등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힘이 교육이라고 확신합니다.**”라고 답했다.